

## 고령층 노동 늘어나는 이유 살펴보니 “생활비 느는데 자녀 용돈 줄어”

고령층 고용률 10년 새 6.7%p 급등한 42.9%...전체 82.0%  
 자녀로부터 받는 사적이전 금액 251만원→207만원 감소세  
 실질소비지출 2012년 1500만원→지난해 1900만원으로 ↑

일자리 질이 열악하고 낮은 임금 수준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은 줄어든 반면, 생활비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월31일 한국은행의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고령층 고용률 상승요인 분석-노동 공급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2010년 36.2%에서 지난해 42.9%로 10년 새 6.7%포인트 상승했다. 2010~2021년 고령층 취업자수도 266만8000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수 증감(324만명)의 8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 수요 또는 공급에 구조적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은이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해 고령층의 취업자수 증가 요인을 분해해 본 결과 고용률 상승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즉, 노동 공급 요인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고령층 일자리의 질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노동 공급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고령층이 주된 일자

리에서 퇴직한 이후 재취업한 일자리의 상당수가 이전 일자리와 관련성이 낮고 임금수준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실증분석 결과 고령층의 고용률 상승에는 고령층이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사적이전 금액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고령층의 생활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노동공급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 따르면 자녀로부터의 지원 금액은 연간 기준으로 2008년 251만4000원에서 2020년 207만1000원으로 줄었다.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고령층 실질소비지출은 연간 기준으로 2012년 1500만원에서 지난해 1900만원으로 늘었다.

또 공적연금·자산소득 대비 생활비의 급격한 증가 등 경제적 요인 외에도 배우자의 취업 증가, 건강상태 개선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적연금, 사적이전, 자산소득 등은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변수의 생활비 대비 비율은 하락하거나 높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또 비근로소득이 없거나 낮은 저소득 고령층

에서 고용률의 상승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또는 사적이전 수혜시 미수혜자에 비해 취업 확률이 각각 2.0%포인트, 0.9%포인트 낮았으며, 공적연금·사적이전 수혜 금액, 자산소득이 100% 증가하면 취업 확률이 각각 0.5%포인트, 0.4%포인트, 0.4%포인트 하락했다.

한은은 고령층의 고용률 상승은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고령층의 비자발적 노동공급을 줄이는 대신 자발적 노동공급은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강철 한은 금융통화위원실 과장은 “사회복지 지출 확대, 기초연금 수준 증대 등을 통해 노동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이태원 참사 애도’ 조기 내걸린 전남도청

전남도는 10월30일 청사 앞 태극기를 비롯한 산하 모든 시·군 지자체 청사에 조기로 게양하고 ‘이태원 참사’로 인해 고인이 된 희생자를 애도하는데 동참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화순군**  
 Hwasun-gun

2022 화순

국화향연

10. 28.(금) ~ 11. 13.(일) 17일간  
 화순읍 남산공원

사랑과 낭만이 가득한 화순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3년에는  
 시가계절이 즐거울  
 ‘화순고인들유적지’에서  
 만나요!

## 서울 이태원 참사 광주 유족들 “최소한의 안전장치 갖춰야”

“이런 참사 재발해선 안돼”

“마스크 해제 이후 3년 만의 첫 대규모 축제인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됐어야죠. 이게 말이 됩니까.”

10월31일 서울 이태원 헬러원축제를 함께 찾았다가 숨진 광주 출신 A(24·여)씨와 단짝 B(24·여)씨의 빈소가 마련된 광주 광산구의 장례식장.

광주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단짝인 이들은 함께 경기도 지역 대학교도 진학하며 인생의 절반을 함께 보냈다. 그러나 지난 10월29일 열리는 마음으로 이태원을 찾았다가 구름 인파 속에서 꿈에도조차 생각지 못한 참변을 당했다.

유족들은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함께 분통을 터트렸다. A씨의 아버지는 “헬러원 축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데다 좁은 골목들이 위치한 이태원의 경우 사람들이 밀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게다가 코로나 방역조치가 전면 완화되고 마스크 조치도 해제됐다면 축제 분위기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고, 사고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며

“상식적으로도 최소한의 장치는 갖춰 놓아야 했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가족은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며 이런 참사가 재발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피해자 B씨의 아버지는 “사고 당일 저녁뉴스에서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앞만 보고 가는 이태원 화면을 봤다”며 “그렇지 않아도 팔이 서울 살아서 ‘저기 가면 안 될 텐데’하며 조마조마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고 회상했다.

B씨의 또 다른 유족은 “뒤에서 밀고 누르니 휴대전화로 도움 한 번 요청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인사 한 번 전하지 못한 채 떠나 먼 길을 떠나고야 말았다”며 “또 다시 이런 안전불감증에 따른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 각 기관과 사회가 이제라도 안전대책을 세워 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29일 오후 10시15분께 서울 이태원역 1번 출구 주변 좁은 골목에서 사람들이 엉키면서 이 시간 현재 154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33명은 중상이다. 사고가 발생한 이태원에는 야외 마스크 해제 뒤 맞는 첫 헬러원을 앞두고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본부

## ‘벌집제거·쓰레기 소각·담배꽂초’ 광주·전남서 부주의 화재 잇따라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주말 동안 벌집제거·담배꽂초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1명이 다쳤다.

10월31일 광주·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30일 오후 3시 48분께 전남 화순군 사평면 A(60대)씨 주택에서 불이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진화됐다.

화재로 인해 지붕 일부가 탔으며 A씨가 손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지붕에 있는 벌집을 가스토치를 이용해 제거하던 중 불이 옮겨붙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같은날 오후 3시 2분께 광주 광산구 대산동에서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해

나무 등 400㎡를 태우고 2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까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후 1시 14분께 광산구 신촌동 모 아파트 후문에서는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길가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담배꽂초로 인해 발생한 불이 차량 쪽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당국은 “가을철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불어 작은 불씨로 인한 큰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화기를 다룰 때는 주변에 인화물질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담배꽂초 등을 버릴 때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행각기자